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
향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그린 약국
reen. Pharmacy
GREEN PHARMACY
(310)504-0600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뚜레쥬르
토렌스 세풀베다길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택시 TAXI
☎(310) 350-9540

코지다운/Cozy Down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로트,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연중 제 21주일

[묵상]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느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이란? 사랑의 실천이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배반자를 끌어안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살을 베어낼 때,
타인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칠 때,
어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을 알아 뵈을 수 있겠는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예수님, 하느님을 소리 내어 불러보고,
하루에 한 번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동을 실천하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실 때,
나는 무엇이래 대답할지를 생각하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자.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김찬규 시몬, (생)김호인 벨라멧다,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우일환 모이세, 석순영 아네스, 김진엽 마지아, 김정례 수산나, 이사범 로벨도&윤주경 안드레아, 엄정자 분다, 김건목 & 심묘택, 켄 오시시 (생)손석 스테파노, 송명환 베드로, 박정희 마리아가정, 엄세종그레고리오 & 엄영숙 마리아가정, 김형준 요한, 최태훈 아오스딩, 정명수 도미니코 & 이성순 카타리나, 오세호 레이몬드 & 오선형 스텔라, 남명자테레사, 권영환 프란치스코 & 최효진 베로니카, 김 마누엘라 수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II. 생물 다양성의 감소

38. 예를 들어, 다양한 생물 들로 가득 차 있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과 콩고 분지나 대수층(帶水層)과 빙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지구전체와 미래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대림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다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작을 위하여 열대림을 불태워 버리거나 갈아엎으면, 몇 년 안에 수많은 생물 종 들이 사라지고 그 지역은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열대림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커다란 세계적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열대림보호를 구실로 개별국가의 통치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 만을 위하여 아마존을 국제화하자는 제안”²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비판적 협력을 해 준 국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정부가 국내외의 부당한 세력들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나라의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존 해야 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책임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9. 주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위하여 처녀림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심은 식물 종이 제대로 동화되지 못하여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습지대가 경작지로 바뀌면서 이전의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상실됩니다. 일부 해안지역에서 맹그로브 습지대로 유지되던 생태계가 사라져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0. 대양은 우리지구의 대부분의 물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엄청난 수의 다양한 생명체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1	241	246
봉헌	270	270	257
성체	283	283	287
파견	234	234	184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 (Isaiah) 22,19-23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11,33-36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16,13-2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교회와 성당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교회(敎會)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상징으로 암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을 통하여 놀랍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창립되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 존재입니다.(「교회 현장」 2항)

교회를 희랍어로는 ecclesia(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편,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성당(聖堂)이라고 부릅니다. 성당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288항에 따르면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알맞은’ 거룩한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성당은 이러한 여정 중에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 활기를 회복하는 쉼터인 셈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찬미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쉬셨나요? 잠시 가만히 앉아 하느님을 생각해 보세요. 색깔의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함께하실 거예요.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는 그리스도에 대한 ()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은 ()입니다

8월20일자 정답 : 기도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2 평화와 축복의 상징인 포도

구약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포도에 비유한다.(신명 8,7-10 참조) 포도는 하느님 자비의 상징이기도 하다.(레위 19,10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기도 했다.(요한 15,1-3 참조) 포도의 가장 큰 상징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포도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 만찬에서 언약의 피로 상징됐다.(마태 26,26-28 참조) 오늘날에도 미사주는 포도주로 사용하고 있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병자와 낯선 남자

어떤 노사제가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정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사제는 급히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쳐다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라서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낯선 사람은 넓은 망토를 두르고 낡은 마구간 등불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제는 창문을 열고 밖에 대고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임종하려는 사람에게 신부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급해요. 오래 살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 기이한 안내자
사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서둘러 옷을 입고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사제는 성체와 성유를 가져가기 위해 성당에 들어갔는데, 함께 들어온 그 남자의 깊은 경건함에 감동을 받았다. “어딤니까?” “제가 안내하지요. 신부님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낯선 그 사람은 등불을 들고 앞장섰고 사제는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고 들판을 지나 대략 한 시간쯤 걸어서 숲에 다다랐다. 그들이 좁은 길에 들어섰을 때 사제는 걱정스러웠다. “이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곳을 잘 압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들은 한 시간쯤 계속 걸어서 마침내 한 오두막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숲 속 빈터에 있었다. “여깁니다!” 그 사람은 그저 이렇게 말하고 문을 열어 사제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작은 침실에서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제가 급히 문을 열자 신음 소리가 그치더니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가 있소?” “예, 당신에게 병자성사를 주기 위해서 온 신부입니다.” “신부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보냈으니 제가 왔지요!” 노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제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었구요.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외딴 이곳에서 오로지 딸과 함께 살았고, 그 애는 일주일 전에 제 언니 집에 갔거든요. 며칠 있어야 돌아 올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나는 속수무책이었어

요. 이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지요.”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사제는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 알 수 없는 안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큰 소리로 부르며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다시 노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사제는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그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노인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다. 병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체를 영해 준 뒤 사제가 말했다. “나를 데려온 남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나를 당신에게 데려왔고 당신이 몹시 아프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환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 그림 속의 남자
사제는 석유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방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 사람입니다! 여기 이 그림 속의 남자요. 분명히 알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것과 똑같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림 속의 남자요? 하지만 신부님, 그분은 성 요셉이잖아요?” 환자는 흥분해서 덧붙였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매일 요셉 성인에게 기도를 했지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옆에 계셔달라고. 오늘밤에도 끊임없이 그분께 탄원했지요. 내게 사제를 보내달라고요. 내가 곧 죽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성인께 아주 열심히 부탁했지요. 고백성사도 병자성사도 받지 못한 채 죽게 하지는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당신을 내게 데려다 주셨군요!”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제 역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올라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 노인은 고개를 떨구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영원히 잠들었다.

♡ 간구의 힘
이처럼 성 요셉이 얼마나 착한 분이시며, 당신께 의탁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성 요셉의 전구가 하느님 대전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깨닫고 그분께 늘 감사한다.

성 요셉과 병자 성사 (요셉피나 히르쉬 수녀 Josephine Hirsch)

- 몽포르 '사제잡지' -마리아 2004년 124호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죄인을 구하소서!

오래 전 봉성체를 하는 환자 중에 16살 된 앳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의 병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몸의 장기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 보통 20살을 넘기기 힘든 희귀병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년은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었고 병세가 깊었습니다. 그는 방문 중에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성체를 영할 때 나지막이 “아멘”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약 2년 후 봉성체가 끝난 후 일어서려는 데 그 소년이 나를 불렀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어요.” “어, 그래.” 그 소년의 말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억울해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죽으면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엄마와 동생에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많이 주었는데 그게 후회돼요.”

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소년의 힘없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이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고마워요. 2년간 신부님이 제일 많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 다음에 또 봐.” 얼마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난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 소년을 꼬옥 한번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 등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태 16,13-15 참조)

이 질문은 제자들이 주님의 신비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교회와 믿음을 가진 모든 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되며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운 구원의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미사 때마다 신앙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의미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보고 이웃이 보이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내가 보이고 함께 이웃이 보인다는 것은 공동체의 인식이며, 자기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혼자라는 것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이제 축복은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혼자되어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는 서로 나눠 가진 비밀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아침미사 7:30, 학생미사(영어) 9:30,
 낮 미사(오전) 11:00

◆9월20일(수)은 성 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바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본당 축일입니다.
 이날 대축일 미사를 9월17일 주일로 이동해서 봉헌합니다.
 본당의 날을 맞아 각 구역별 연도 대회를 개최합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든 구역원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9월 17일 (주일), 미사 후
 ● 대상 : 백삼위 한인 성당 모든 교우

◆ 백삼위 한인성당 성소후원회 모임 안내
 ● 일시 : 9월 2일 (토요일) 첫 토요일 신심 미사 후 9시30분
 ● 장소 : 이층 Room 3
 ● 연락처 : 회장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부회장 김정용요한 ☎ (310)720-8240
 총무 송인선 안젤라 ☎ (503) 927-0770

◆ LA대교구 다민족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16일(토) 오전 9시30분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LA 대주교
 ● 한복을 입고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과 함께 하는 1박 2일 백삼위 캠프
 ● 일시 : 9월 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4일(월) 10시 30분
 ● 대상 : 백삼위 한인 성당 교우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잔디 밭
 ● 참가비 : 1인 기준, \$ 5
 ● 신청마감 : 8월 27일 오전 11시 까지
 ● 신청 접수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정판영 레오 (310)414-7655
 ●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본당 사무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103skcecks@gmail.com
 ☎ (213)700-939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9월10일(주일)부터 개학합니다.

◆ 성요셉 천주교 아버지학교 제 6기 등록안내
 ● 일시 : 2017년 9월 10일, 17일, 24일, 10월 1일
 총4회 매주 오후 2시
 ● 장소 : 성 라파엘 한인 천주교회
 12366 Rosecrans Av. Norwalk, CA 90650
 ● 등록비 \$150
 ● 문의 : 오재민 바로로 ☎ (562)505-807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권오상 김정자 김관기 김대우 김봉녀 김성택 김성현 김재희 김철민 노혜숙 류현옥 박개순 박광자 박완철 박진선 반정이 오수인 위진록 이민상 이인석 이재용 장영진 정연영 정인옥 정임선 최길주 최원석 홍인표	성전헌금	강미순 권오상 김관기 김대우 김성현 김재희 김철민 노혜숙 박개순 박광자 박완철 오수인 이민상 이인석 장영진 정인옥 최길주 최원석
	합계:\$2,860		합계 : \$1,230
주일미사헌금 :\$2,224		성모승천대축일 :\$ 1,120	감사헌금 :\$ 200(엄세종)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창립 40주년 기획 골프대회
 창립 40주년기념 성당확장프로젝트로 자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샷건방식)를 개최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9월 24일 (주일) 오후 1시
 ● 장소 : Royal Vista Golf Club
 ● 문의 : 김영수 사무엘 (562)991-4200

◆남가주 한인 M.E.제 79차 첫 주말
 ● 일시 : 9월 23일(토)오후 7시~24일 (주일)오후 5시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1519 Woodworth St.San Fernando, CA 91340
 ● 참가비 : 부부당 \$350(숙식포함)
 ● 연락처 : 오승준 미카엘 & 수완 아네스 ☎ (562)714-5901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성서사십주간 하반기 개강
 성서사십주간은 성경통독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2017년 8월 24일 - 12월 14일(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전 10시- 12시 /저녁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과정 : 구약 역사서(열왕기) - 시서와 지혜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70(교재 별도구입)
 ● 장소 :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제 19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시간 - 2017년 9월 10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6.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전화<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음(신청순 50명)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소 공동체 부장	김준 방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오신재 메히틸다 8/16(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8/12(토)오후 6시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임순 테레사 8/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이재호 펠렉스 8/12(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8/20(주일) 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테레사 755-8462	최옥희 테레사 8/18(금) 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계옥 로사리아 8/15(화) 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8/14(월)오후7시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3(주일) 오후5시 성당
	2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오 스테파노(310) 756-7776 8/11(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이재준 요한 8/19(토)오후 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	----